

“실내공간과 색채대응”

Interior Space & Color

제2회 학술세미나가 “실내공간과 색채 대응”이라는 주제로 1995년 6월 9일(금) 오후 1시 30분-5시 30분까지 연세대학교 일련관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자와 내용은 현대건축과 색채(천의영/계원조형예술대 교수), 빌딩BI를 위한 색채계획(김현선/김현선 환경디자인 연구소 소장)이며, 이어서 1995년도 IDEC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이연숙 교수(부회장, 연세대 주거환경학과)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주제와 내용들을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실내교육, 실내색채, 실내역사 위원회가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 협의회가 후원하고, 고려건장, (주)넥서스, 삼화도장, 아미건설(주)의 협찬으로 이루어졌다.

발표한 내용을 게재하기로 한다. <발표순>

현대건축과 색채

(Color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천의영 / 계원조형예술학교 조교수

글머리

현대건축과 색채를 생각하면 멕시코의 건축가 바라간(Luis Barragan)과 그의 작업을 많이 계승했다고 보여지는 리카르도 리고레타(Ricardo Legorreta)의 작업들이 떠올라 만큼 이들은 색채가 인상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세미나에서는 근대건축이후 건축색채와 회화가 상호작용하는 현상과 최근 건축의 주요 건축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색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회화의 색채와 현대건축

근대건축이 자리를 잡고있던 1920년대 유럽에서의 회화와 건축은 아주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바로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회화작업인 컴포지션류의 회화와 리트벨트(Gerrit T. Rietveld)가 설계한 회관의 슈뢰더 하우스(Schroder)는 회화에서 사용되는 색채를 건축 및 실내건축에 적용한 고전적인 예로 보여진다. 사실 빈센트 스킴리(Vicent Scully)에 따르면 데오 반 도스부르크나 데 스틸(De Stijl)의 예술가들은 동시대 미국 건축가인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건축과 예술작업들이 장르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색채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여진다. 한편 70년대 초반 대중예술(Pop Art)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y)는 대중건축

(Pop Architecture)을 지향하며 팝아티스트인 워홀(Andy Warhol)의 ‘꽃(Flowers, 1970)’과 같은 작품을 자신의 건축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 등을 보여 소위 포스트 모던 건축의 시발점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의 건축작업에서도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초기 뉴욕 파이프 시절의 화이트 칼라와는 달리 로마의 옛 회화에서 보여지는 청록색과 주황색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내 색채에 있어서도 앤티 스텝코의 유사색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오레곤주의 포트랜드 공공청사(1983) 등은 로마적 색채의 느낌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최근 해체적인 건축작업을 하고 있는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의 베를린 ‘시티 에지(City Edge)’ 현상설계안에서도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넘버원 페인팅이나 프랭크 스텔라의 예술작업에서 색채 등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 근대이후 건축작업속에 예술작품의 색채가 반영된 작품들을 살펴 보았는 바, 이렇게 건축물과 현대 회화가 서로 영향을 주는 작업들도 현대건축의 색채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미국동부의 뉴욕 파이프 출신 건축가들과 서부의 캘리포니아 건축가들

마이어(Richard Meier),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아이젠만(Peter Eisenman), 과스메이(Charles Gwathmey), 헤이덕(John Hejduk) 등 소위 ‘뉴욕 파이프(The New York Five)’라고 불리워지는 건축가들은 콜링로우의 영향으로 르 꼬르뷔제의 초기작품에 영향을 받았던 건축가들이다.

이들은 ‘백색주의자(The Whites)’라고 칭해지기도 하는데 특히 이중 리차드 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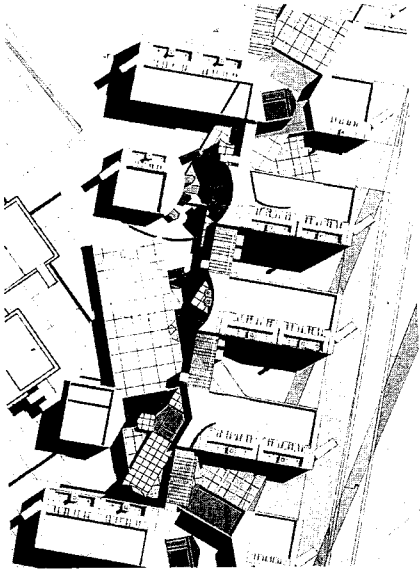
는 일관되게 백색을 고집하고 있다. 초기 작품인 찰즈만 하우스(Salzman House, East Hampton, New York 1967)에서 최근 LA근교의 게티뮤지엄, 프랑크푸르트의 장식예술미술관(1980, 사진1) 등에서 일관



<사진1> 마이어(Richard Meier)는 프랑크푸르트의 장식예술미술관(1980) 등에서도 보여지듯 일관된 백색의 솔리드 벽과 철 파이프의 난간 및 보이드의 유리 등을 주특징으로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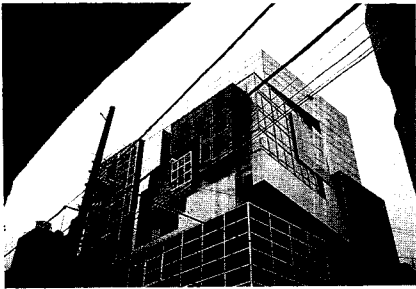
되게 내외부 공간에서 백색의 솔리드 벽과 유리 및 철 파이프의 난간을 주특징으로 하고있다.

한편 최근 해체적인 일련의 건축작업들을 하고 있는 피터 아이젠만은 건축물의 외관과 내부에서 파스텔톤의 색조를 일관해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프랙탈 기하학의 이미지와 DNA의 복제, 전사, 해석과정을 표현한 프랑크푸르트의 괴테대학 생물학 연구소(The Bio-Centrum) 프로젝트(사진2)에서는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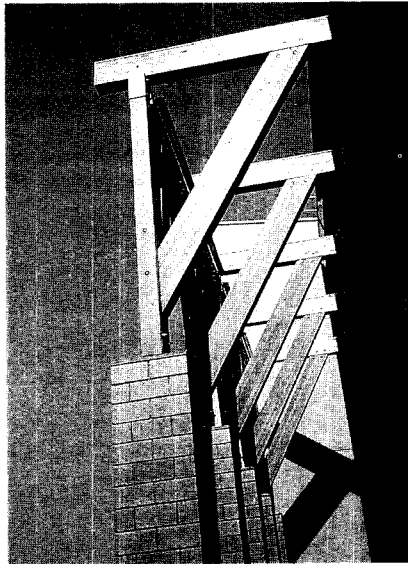
〈사진2〉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은 건축물의 외관과 내부에서 파스텔톤의 색조를 많이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생물학 연구소(The Bio-Centrum) 프로젝트는 특히 DNA의 복제, 전사, 해석과정을 색채로 표현하여 보여준 점이 흥미롭다.

전자 전이과정에 따라 파스텔톤의 기초색과 빨강, 파랑, 보라의 액센트 원색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과정과 건축적 표현의 가능성을 색채와 형태를 매개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파스텔톤의 사용은 동경의 NC빌딩이나 IS-M빌딩(사진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진3〉 일본건축가가 건축물의 주요부를 설계하고 아이젠만은 저층 고층의 일부분만 설계한 동경의 조명 회사 고이즈미 빌딩, 건물 내부에서 파스텔 톤의 색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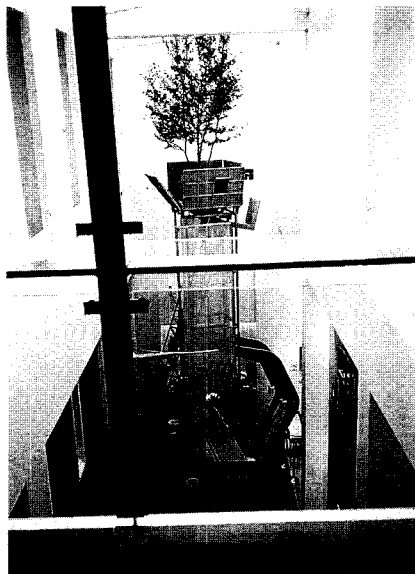
한편 서부의 젊은 건축가들에게 캘리포니아 스타일이라는 건축적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흥미로운 건축작업을 하고 있는 프랭크 게리는(Frank O. Gehry)는 이질적인 재료 자체의 혼합을 통한 재료색의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이지역의 젊은 건축가들이 보여주는 캘리포니아적 특징처럼 보여진다.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U.C., Irvine) 캠퍼스의 게리건물(사진4)은 이러한 특징들이 잘 보여지는데, 게리는 워낙 값 싼 재료와 거친 조인트의 표현을 통해 하나의 건물을 마치 마을같은 건축으로 만들어내면서 블록, 금속,



〈사진4〉 프랭크 게리는(Frank O. Gehry)는 이질적인 재료 자체의 혼합을 통한 재료색의 표현을 많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U.C., Irvine) 캠퍼스 강의동의 부속벽부

목재 등의 재료적 색조감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포포시스는 탐 메인(Tom Mayne)과 로톤디(Michael Rotondi)가 함께 작업하다 최근 서로 독립하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기계적 구조물의 이미지에서 도출한 실험적인 요소들을 건축에 응용하고 있다. 특히 L.A.의 말기 암환자 센터(Cedar's Sinai Comprehensive Cancer-center, 1987)내의 테이블과 텔레비전, 화분 등이 결합된 구조물(사진5)이나 케이



〈사진5〉 모포시스가 L.A.의 말기 암환자 센터(Cedar's Sinai Comprehensive Cancer-center, 1987)내에 설계한 테이블과 텔레비전, 화분 등이 결합된 구조물

트 만탈리아니 식당(1986)의 구조물 등에는 기계적 이미지와 색조감이 보여진다. 또한 에

릭 모스(Eric Owen Moss)도 게리그룹 건물(1990, Culver City, CA 사진6)의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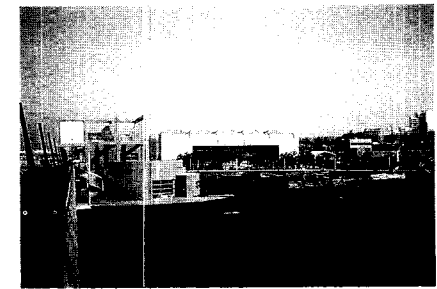


〈사진6〉 에릭 모스(Eric Owen Moss)도 게리그룹 건물(1990, Culver City), 목재, 철조, 블록 등의 재료색을 잘 볼 수 있다.

부의 블록, 철조물이나 외부의 토관 사용 등에서 재료적 색채의 사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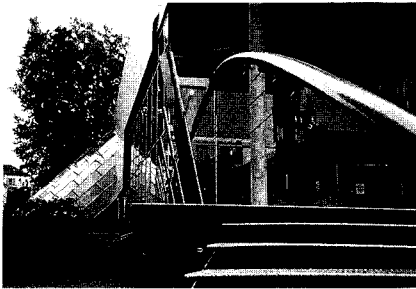
유럽과 일본의 건축가들

츄미(Bernard Tschumi)는 라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 1989 사진7)을 후



〈사진7〉 츄미(Bernard Tschumi)가 설계한 라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 Paris 1989)내의 폴리

기구조주의 철학자 데리다와 함께 작업하면서 소위 러시아 구성주의자인 체르니코프의 '일백일개의 건축적 환상'에 의거한 120m 그리드 속의 폴리를 계획하였다. 물결과를 형상화한 캐노피의 긴 주진입로와 빨간 원색의 폴리들이 시각적 초점을 형성하는 이 공원은 기초의 흑색과 원색의 액센트 색을 이용한 색채적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유리, 쇠파이프, 아크릴, 금속재료 등으로 작업하는 독일의 귄터 베니쉬(Gunter Behnisch)는 독일 국회의사당(1992)이나 프랑크푸르트의 우편박물관(1990 사진8) 등에서 선적인 색채와 면적인



〈사진8〉 Gunter Behnisch는 프랑크푸르트의 우편박물관(1990)에서 선적인 색채들을 유리, 철골등의 무채색 재료들과 교묘하게 결합하고 있다.

재료색 또는 원색등의 결합을 교묘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사뵈로의 문슨 레스토랑 등에서 자극적인 빛과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는 자하 하디드(Zaha Hadid)나 철조, 유리 등의 재료에 흰색주조색과 빨강 액센트색 등을 결합한 공장건물(Funderwerk 3, Glan, Austria 1988) 등을 설계한 비엔나의 쿵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 등도 흥미롭다.

끝으로 일본의 경우 타다오 안도는 콘크리

트 등 중성적인 회색계열의 재료색에 물, 빛, 녹지 등 자연요소를 끌어드리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후미히코 마키의 경우도 최근의 작품 테피아나 마쿠하리 메세, 힐사이드 테라스 등 일련의 작품에서 보여지듯 알루미늄과 유리 등의 재료색들을 주로 사용한 정교한 금속 디테일의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문학성과 과잉'이라는 건축적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는 신 타카마쓰는 기린 프라자(1987, 사진9), 신택스(1990) 등에서 보여지듯 스테인레스 등 금속색이나, 콘크리트, 흑색 석재 등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나, 워킹빌딩(Week, 1986)에서 보여지듯 빨간 원색등으로 강조하여 강렬한 인상을 표출하기도 한다.

맺음말

이상 개략적이거나 최근의 건축물과 색채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물론 많은 건축물을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다뤄진 건축가의 건축물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여진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건축가 나름대로의 색채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해 보고 싶다.



〈사진9〉 신 타카마쓰(Shin Takamatsu)의 오피스 타카기린 프라자(1987)

건축물 BI수법으로서의 색채디자인

김현선/김현선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색채의 유행성

색채를 건물등의 환경에 응용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뒤풍사에 의해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구미 각국에서는 색채공학, 색채조절등의 용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효율성과 기능성을 그주된 개념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공장, 기기, 상품에 색채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도모하자는 색채기능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 탈근대사회(Post-Modern Society)로 바뀌게 되는 1960년대 이후, 특히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70년대 이후 색채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생겼다. 근대사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기능성과 효율성이었다면 탈근대사회는 다양성과 개성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색채에 대한 접근도 기능색채에서 벗어나서 개성화에 바탕을 둔 풍요로움을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에는 색채의 범람이라고 할만큼 풍부한 색채가 생활에 도입되고 있다.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시킨 요인으로는 건축자재의 변화가

있다. 근대건축이후 국제주의가 왕성하던 50년대말까지는 건축자재가 한정되어 있었다. 건축물의 재료는 콘크리트, 철, 유리 등의 천연자재였으며, 콘크리트조차 색채를 하지 않는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색채를 사용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의 부위에만 액센트로 사용하는 극기적인 것이었다. 그 후 건축자재는 급속도로 발달하여 알루미늄, 범랑, 화학자재 등의 인공자재로 바뀌었고 이러한 자재는 천연색이 없기 때문에 모두 새로운 인공색을 지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인공색이 도입되고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의 그래픽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그래픽이 유행한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아파트단지 등에 색채가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건축자재의 변화라는 흐름과 더불어 색채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커다란 변화를 맺게되었는데 이는 환경색채의 발전이다. 1960년대 후반 J.P랭클로 와 같은 칼라리스트들이 도시환경에 색채와 슈퍼그래픽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색채가 발달하게 되었다.

BI수법으로서의 색채디자인

우리가 사는 도시는 무엇이든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뿔어넘치는 무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시의 기본적인 특징으로서 도시사회학자는 인구규모와 고밀도성, 이질성의 세가지를 든다. 여기서 이질

성이란 도시에 사는 인간의 다양성과 건물에서 느껴지는 가치관의 다양성도 포함된다. 문화의 다양성은 디자인을 존속시키는 일종의 기간구조이다. 디자인을 인간 역사와 생활의 맥락에서 보려는 시점이 있는 한편, 디자인을 수법으로 파악하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려는 디자인관이 있다 점차(상품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상품화에 대한 시각은 이제 제품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을 넓혀 공간디자인, 심지어 도시경영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간다.

• BI의 개념

BRAND/상품 그 자체 또는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사와 구별되도록 만든 상품의 개성을 말한다. BI (BRAND IDENTITY)/브랜드가 갖는 독자적인 개성과 이미지

BI의 전개/정보만들기

인간은 오감으로 의사의 소통을 피하나, 각 감성은 늘 균등한 기회를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80%이상의 의사 전달 기능을 시각요소가 차지하고, 그 지위를 유일하게 높혀가고 있다. 시각적인 아이덴티티와, 물질적으로 지닌 잠재적 고유의 아이덴티티는 별개의 것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색채계획에 있어서는 시각적으로 규칙화하는 베이직 시스템이 지역성, 운영방법, 물질적 요소 등에 의하여 변화하며, 내재하는 아이덴티티에 늘 가치를

부여하여 나아가는 방법을 계획해야한다. MACRO에서 MICRO로 시각이 이동해도 늘 단편적인 요소로서 형태, 색상, 소재, 패턴이 의미를 갖고, 나아가서 전체로서 하나의 이미지(아이덴티티)를 창출하도록 시도한다.

색채 코디네이션

현재 시사되어있는 기조색, 주변의 자연에서 채집한 색을, 일단 기조지역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분해하여 각각의 색상을 동일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각각의 색상이 담당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여, 색채 시스템을 구축한다. MACRO에서 MICRO에 도달할 때까지 그 거리, 지역, 지구, 요소를 아이덴티티 구축이 가능한 색채계획을 제안한다. 색채계획은 색채 코디네이션(색채조화)과 색채 콘디셔닝(색채조절)으로 성격이 분리되어진다. 전자는 감성적, 후자는 기능적으로 색의 작용을 목표로 삼는다.

색채에 관한 감성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낸다. 공공공간 속에서는 민주적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한다. 즉 색채 코디네이션 영역에서는 정해진 범위 속에서 자유로이 조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리고 기조가 되는 부분, 기능적인 부위에 관하여는 전체 상징색, 세그먼트색 등등의 색으로 색채 코디네이션 하여 간다.

색채계획의 순서

1. 대상을 설정한다.
2. 현황조사분석을 행한다. 색채계획 대상의 특성 파악, 기존 색채를 중심으로 한 분석, 사용자가 바라는 이미지의 파악등을 분석의 내용으로 삼는다.
3. 디자인개념 설정을 행한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미지의 방향을 설정한다. 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전개한다.
4. 기본방침을 정한다.
5.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대상부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색채계획을 책정하여 실시도면을 작성한다.

6. 사용규정서를 작성하여 계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색채계획의 연출기법

1. 특성화

고유한 이미지 창출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이미지 통일화를 통해 이미지 홍보증진이 가능하다.

2. 차별화

인지도가 높으며 독자성이 느껴지는 환경으로 유도한다.

3. 모듈화

표준화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요소의 연출 기법과 형태, 규격, 재료, 색채등의 유형에 따른 모듈화를 시도한다.

색채계획의 수행과정

